

Introduction to the NT

신약개론

1

Introduction to the NT

빌립보서

- 56년 (에베소일 경우)
61-63년 (로마일 경우)
58-60년 (가이사랴일 경우)
- 옥에 갇힌 상황에서의 다양한 권면
 - 거짓 교사에 대한 경고
 - 빌립보인에 대한 감사
 - 폴리감의 증언
- 죽음에 대한 사색
 - 죽음의 가능성과 씨름하는 바울
(빌 1:20-26; 고후 5:1-10)

2

Introduction to the NT

배경

- 50/51년경 저작
 - 로마에 복음이 처음 전해지던 시기 (예루살렘으로부터)
 - cf. 로마서 저작 57/58년 경
- 사도행전과의 평행
 - 행 17:2, 세 안식일
 - 17:5- 야손의 집 침입 난동
- 빌립보서와 평행
 - 빌 4:16, 빌립보 교인의 연보 회상

3

Introduction to the NT

- 빌립보에서의 상황
 - 어지럽히는 자들
 - 내적인 분열
 - 외적인 대적
 - 악한 자들(개들)
 - 식욕을 자기들의 신으로 만드는 자들
 - 할례 받은 남성의 기관을 자랑하는 자들
- 송가 (2장 5-11절)
 - 골 3:16; 엡 5:19; 히 2:12; 고전 14:15, 26; 약 5:13
 - 시편에 필적할 만한 기독교인이 작성한 시
 - 고 기독교론 (high-Christology)

4

Introduction to the NT

- ※ 주요 고 기독교론 모티프
 - 그 아들에 대한 묘사
 - 다른 모든 이름 위에 주어진 이름으로서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묘사 (빌 2:9)
 - 창조, 회복으로 이끄는 악과의 투쟁
 - 부활로 이끄는 예수의 죽음(승귀, 보좌에 앉으심)
- cf. “아웨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,
‘너는 내 우편에 앉으라’ ” (시 110:1)
- 롬 8:34; 엠 1:20-22

5

Introduction to the NT

- 2장 9-11절 ‘승귀’ 의 주요 구조
 - 배경: 외부 문학/ 관념인가, 구약 개념인가
 - 언어: 헬리어인가, 아람어인가
 - 기독교론
 - 근본 하나님의 본체(모르페)
 - 피조되지 않은 존재라는 것인가
 - 하나님의 닮음이라는 것인가
 - cf. 창 3:5 ‘네가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’
 - 신적 존재의 성육신을 단정하는가
 - 아담이라는 두 인물(유형)에 대한 역할인가?
 - 성육신적이며 30년대 아람어였다면
 - 최고 유형 기독교론은 초기에 확립된 것!

6

Introduction to the NT

빌레몬서

- 로마의 고도 계층화 사회와 교회
 - 상부층(원로원), 지역 특권층, 소지주/상점주, 자유민
 - > 빌레몬은 훌륭한 기독교인
 - 가정 회합 장소 제공
- 오네시모
 - 도망 노예
 - 주인에게 순종하라-는 다른 서신과 비교
 - 노예제에 도전하는 것인가
 - 왜 (노예 해방에) 적극적이지 않은가? - 종말론
 - 오네시모의 이후 생애
 - 어찌하여 이 한 통의 편지가 보관될 수 있었는가?

7

Introduction to the NT

고린도전서

- 고린도 지역적 이해
- 파벌의 문제
 - ‘나는 OO에게 속했다’
 - 실로 유일한 기초이신 예수 그리스도
- 결혼의 연합
 - 성적 결합은 몸에 영향을 준다
 - “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”
 - 독신론의 근거로 현대에도 남아 있다

8

Introduction to the NT

■ 음식의 문제

-약한 신자들에 대한 고려

■ 사도로서의 자기 권리

- 부활하신 주님을 보았다.
 - 바울의 목격자 명단
- 사도(권)은 12명 +a 인가?

■ 10-11장

- 바다를 지나갔고 - 출애굽 -- 세례와 성찬
 - 후대에 확정되는 성례전 신학의 통찰 제공
- 코이노니아: 합당치 않게 성찬에 참여하면
 - 주의 몸과 피를 범함이다

9

Introduction to the NT

■ 12-14장

- 12장과 14장은 은사와 경영
 - 20/30년 후에는 목회서신에서 제도화 (감독-집사 구조로 전환)
- 13장 사랑의 송가
- 12-14장은 중간에 끼어든 본문인가?

■ 15장

- 부활에 관한 논쟁
 -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는 일부 기독교인
- 부활의 영적 의미
 - 아담 안에서 죽음, 그리스도 안에서 삶.

10

Introduction to the NT

-- 프쉬코스(육체적인 몸),
프뉴마티코스(영적인 몸)

◆ 간음자와 동성애자에 대한 비판

- 포르노이(간음에 빠지는 자들),
- 말라코이(부드러운 남자),
 - 아르세노코이타이(남성과 잠자리를 같이 하다)
 - 레 18:22; 20:13
 - 롬 1:26-27보다 직접적으로 표현
 - '입시 윤리' 를 넘어서는 문제

11

Introduction to the NT

■ 은사에 관한 문제 (14장)

- 한 사람이 방언하면 통역, 다른 한 사람이 방언하면 또 통역,
예언도 한 사람이 예언하면, 다음 사람이... 하는 식으로 진행.
- 현대 적용의 문제:
 - (1) 예언(프로페테오)의 형식의 문제. 신점인가 충고인가(예: “당신은 전공(직업)을 바꾸십시오.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겁니다.” or “술, 담배를 끊으십시오.” 도 예언.)
 - (2) 당시 예배 예전과 지금 예전의 차이. 당시는 별도의 설교가 없었다. 상기 (1)의 교회활동(activity)이 대신함. 방언이든 예언이든 복수의 사람이 차서 있게 돌아가면서 해야 하는 것 (14:27). 문제는 그 예언이 전혀 지혜롭지도 못할 때, 보다 지혜로운 예언에 통제 받아야 했다(32절). 예언으로 어지러웠던 것도 그 때문이며(33절), 특히 여성을 잠잠하라 했던 명령은 여성 차별이 아니라 교육 혜택에서 소외될 수밖에 없던 여성의 발언은 예언에 적합하지 못했기 때문.

12

Introduction to the NT

- 어지러움과 질서 통제: “만일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나 혹 신령한 자로 생각하거든 내가 너희에게 편지한 것이 주의 명령인 줄 알라.” (14:37)
- 그리고 무엇보다도 “뭘 하든 알아듣게 하라...”
- 사도나 선지자보다 더 높은 표준→ “편지”
 - ※ “주의 명령이 편지인 줄 알라” 고 쓰지 않고 “편지가 주의 명령인 줄 알라” 는 표현 유의.
 - 여기에서 오늘날의 설교.
 - 설교는 그 편지의 표준을 보충한다.
- 결론: 첫째, 설교가 편지의 기능을 상실하면 표준으로서 지위를 상실하는 것.
 - 둘째, 설교가 프로페테오(예언) 기능을 상실하면 여러 사람의 방언과 예언을 제도로 독식한 것에 지나지 않은 것.

13

Introduction to the NT

- 셋째, 교회가 다시 복수의 프로페테오 시절로 돌아간다면 그것은 초대교회로의 회귀가 아니라 점집으로의 회귀에 지나지 않는다.
 - 어지러움의 프로페테오를 개혁과정을 통해 다듬어낸 것이 설교이기 때문.
 - 넷째, 설교가 어지러워졌을 때는 복수의 프로페테오로 회귀하는 것이 아니라 편지로 회귀할 것.
- ※ 성경으로 임하는 자세의 기본

14

Introduction to the NT

로마서

- 다른 어떤 신약 편지들보다 긴 서신
- 사색적, 칭의와 율법에 대한 문제
- 갈라디아서보다 냉철하고 이성적 논고
- 어거스틴 - 루터 - 칼빈 - 바르트에 이르기까지 신학의 발전에 있어서 주된 역할
- 로마
 - 1세기 로마의 유대인 인구
 - 4~5만 명
 - 기독교 = '유해한 미신'
 - 로마교회--- 바울이 회심시킨 교회인가?

15

Introduction to the NT

- 복음을 통해 나타내신 하나님의 정당성/의로우심(디카이오쉬네)
 - 로마서의 중심 주제
 - “하나님의 의가 이제 나타났다” (1:17)
 - “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” (함 2:4)
 - 칭의(稱義), 이신칭의(以信稱義)
 - 일컫다: 칭/稱 -- ~로써: 이/以
 - 의롭다: 의/義 -- 믿다: 신/信

16

Introduction to the NT

-- **칭의(δικαίωσις, 동사 δικαίωω /의롭다고 하다)**
동사: 디카이운, 디카이오오
명사: 디카이오쉬네, 디카이오시스
형용사: 디카이오스

-- **하나님의 의(義)**

-- **예수 그리스도의(of/in) 믿음을 통한
하나님의 의.**

예수 그리스도/를/ 믿음

예수 그리스도/의/ 믿음

17

Introduction to the NT

칭의

■ **칭의의 본형:**

“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신 일을 믿는
사람들 중에 행하신 결과를 묘사하기 위해
바울에 의하여 사용된 단어”

“바울에게 있어서 칭의 혹은 의로다하심은
율법 아래의 의의 자리를 차지” (빌 3:6)

■ **마틴 루터의 사용**

-- 유대인에 맞선 바울의 칭의를

-- 가톨릭에 맞선 루터의 칭의로

---- 바울에 대한 현대의 공격

---- 루터에 대한 현대의 공격

18

Introduction to the NT

- 가톨릭의 공격:
“칭의는 선행으로 얻을 수 없는 하나님이
거져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수정하였다.”
- 새관점 학파의 공격:
“유대인은 약속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됨을
알고 있었다.” (언약적 신을주의)
- 바울의 칭의
 - 아브라함의 예형
 - 아담의 예형
 -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